허튼 가락으로 하나 되는 장, 2025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2025 김창조산조페스티벌, 오는 9월 13일 영암에서 개막

가야금산조의 창시자, 김창조(金昌祖)의 고향이자 산조 음악의 발원지인 전남 영암군이 그의 위대한 음악적 유산을 기리는 축제의 장을 연다.

영암군은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가야금산조기념관과 도갑사 일원에서 '2025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산조의 본향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높인다.

이번 축제는 '연결의 힘'을 대주제로, 산조의 본질인 '허튼 가락'이 지닌 무한한 창조성과 자유로움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허튼 가락'이란 정형화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던 민속 가락을 의미한다.

악성(樂聖) 김창조는 바로 이곳, 영암의 땅과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던 이 자유로운 가락들을 집대성하여 독주 기악곡인 '산조(散調)'라는 위대한 예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이번 축제는 그의 창조 정신을 계승하여, 산조의 고향 영암에서 당대 최고의 명인들과 재기발랄한 신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산조의 깊이와 끝없는 확장 가능성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은 영암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극대화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김창조 명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가야금산조기념관과 월출산의 수려한 풍광을 품은 도갑사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은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산조의 탄생지에서 그 뿌리와 직접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전통의 맥을 굳건히 잇는 명인들의 정통 산조 연주뿐만 아니라, 젊은 국악인들이 자신만의 음악 언어로 재해석한 창작 산조 무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타 장르와의 협업 공연, 해외초청 공연 및 영암의 마을과 삶 속으로 스며드는 현장 퍼포먼스 등 혁신적인 시도들로 가득하다. 이는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가락을 엮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던 김창조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또한, 일반 대중과 전문가를 위한 워크숍과 학술대회, 포럼을 통해 산조의 예술적 가치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세계적인 음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축제의 예술감독을 맡은 원일 감독은 "산조는 시대의 감성과 정신을 담아 끊임없이 변화하며 세대를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위대한 살아있는 음악예술"이라며, "산조의 발원지인 영암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를 통해 관객 모두가 김창조의 산조 정신과 연결되는 새로운 공동체성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 음악이 지닌 무한한 힘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고 축제의 의미를 전했다.

영암의 역사와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질 '허튼 가락'은 1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2025 김창조산조페스티벌'의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일정과 내용은 공식 SNS 채널과 영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창작오페라 춘향전' 공연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9월 4일(목) 오후 7시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한국 창작 오페라의 대표작 '춘향전'을 공연한다.

창작 오페라 '춘향전'은 한국 창작 오페라 역사상 최다 공연 기록을 자랑하며, 수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작품으로 깊은 전통과 아름다운 음악, 한국적인 감성과 미학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코리안오페라단(대표 노영우, 예술총감독 정나리, 연출 김어진, 음악감독 김지은)의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출연해 오페라의 진수를 선보인다. 춘향 이예니, 이도령 하세훈, 향단 차근영, 방자 박병준, 월매 신선희, 사또 박현석이 출연하며, 메트오페라합창단과 단 무용단이 무대를 함께 꾸민다.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군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영광군과 코리안오페라단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영광군민-3,000원, 학생할인-1,000원/1인 4매 한정)이다. 입장권은 오는 8월 27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를 하거나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영광/이현식 기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누리집서 수묵 향연 미리 즐기세요

'작가의 방' 개설… 1~6관 참여작가·주요 작품 정보 한곳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이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공식 누리집에 '작가의 방'을 새롭게 개설, 온라인에서 수묵의 향연을 미리 즐길 수 있도록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가의 방'은 비엔날레 6개 주요 전시관에 참여하는 작가와 주요 작품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람객이 개막 전부터 작품 너머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도록 마련된 온라인 예술 보관소(아카이브)다.

관람객은 1관 문화예술회관에서 세계 수묵 거장들의 대표작, 대형 기획전 등을 먼저 만나며 현대 수묵의 스펙트럼과 깊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관 실내체육관에서는 마리안토, 지민석 등 국내외 작가가 전통 수묵 재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실험적 설치와 회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3관 남도전통미술관에서는 이응노, 박생광, 서세옥, 송수남, 황창배 5인의 작품이 전통 수묵에 혁신을 불어넣으며, 각기 다른 현대적 해석을 펼친다. 4관 소전미술관은 추사 김정희와 소전 손재형 등 서예·서화 명인의 작품을 통해 전통 필묵 예술의 흐름과 시대를 관통하는 미학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5관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다산 정약용과 수화 김환기를 비롯해 로랑 그라소, 홍푸르메 등 동서고금을 잇는 7인의 작품이 장르를 넘나드는 융합의 장을 펼친다. 6관 고산 윤선도박물관에서는 공재 윤두서와 겸재 정선의 작품을 통해 해남이 품은 수묵 예술의 뿌리와 그 정신적 원류를 새롭게 비춘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작가의 방은 전시장에 오기 전, 작가와 작품 세계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창"이라며 "현장 관람의 감동과 온라인의 깊이 있는 경험을 더해, 수묵을 더 많은 사람의 일상 속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작가의 방'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누리집(https://sumukbiennale.kr)의 '2025 전시안내'에서 만날 수 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명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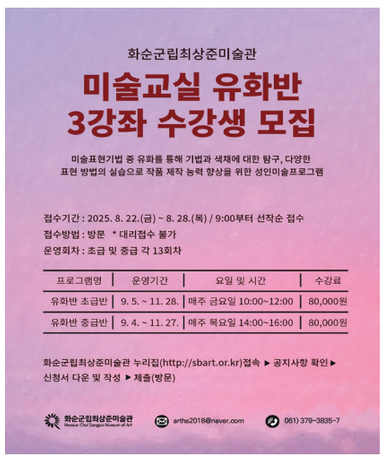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미술교실 유화반 3강좌 수강생 모집

성인 대상 미술 교육 프로그램 '미술교실 유화반' 운영

화순군(구복규 군수)은 22일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교실 유화반(초급·중급) 3강좌 수강생을 오는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인 대상 미술교실 유화반은 그림에 처음 도전하는 초급반과 기초를 익힌 수강생을 위한 중급반으로 나눠 운영되고, 수강생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인 유화 실습을 진행한다.

초급반은 유화의 기본 재료 사용법, 붓터치 연습, 색채 이론 등 기초적인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그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며, 중급반은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구도 구성, 질감 표현 기법, 개성 있는 작품 연출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창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예술적 자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초급반 운영은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3회 운영된다. 중급반은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3회 운영된다. 2개 반 모두 모집인원은 7명, 수강료는 8만 원이다.



강삼영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미술교실은 단계별 수업을 통해 유화의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로,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지역민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가까이 누리며 문화적 감수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농어촌+
농지가 있다면 지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연금
금이 있습니다 쪽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